

오피니언

다산포럼

남영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언어 민주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느끼는 언어 민주화는 두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표준어 정책에 대한 지역어의 도전에서, 다른 하나는 두음법칙에 대한 개인들의 도전에서 나타났다. 이 두 부분의 도전은 민중의 언어 수요가 국가주의적 언어 정책에 점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사항일 뿐 아니라, 민중이 드디어 언어정책의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지난 5월 26일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표준어와 지역어의 공존 방안 모색'이라는 학술 토론회(이 토론회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전국국어어문학회 회원들이 주최하고 전국국어어문학회가 주관했다)가 표준어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주인이 돌아왔다!

앞으로 표준어 정책이 지역어의 보존 및 발전 정책과 함께 가게 된다면 각 지역 문화의 특성이 언어와 함께 살아 숨 쉬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 문화의 총을 지극하다 훨씬 더 두껍게 해 주리라고 믿는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다. 두음법칙은 남한에서는 매우 잘 확립되어 의사의 여지가 없이 수용된 음운법칙인데 이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개인의 정체성 확보보다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대법원의 호적등록 규칙에 따라서 성씨 표기에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왔다. 그래서 '류(柳),

리(李), 림(林), 량(梁), 려(呂), 라(羅), 로(盧)' 등의 한자 성씨를 '유, 이, 임, 양, 여, 나, 노'로 표기해 왔다. 그런데 일부 성씨 문중에서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몇몇 지방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의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언어정책에 이처럼 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는 것은 국민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곤 볼 수 있다.

국가의 언어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인 국어심의회에서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언어 운동이 결실을 맺어 조금씩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감사원은 감사 문장을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는 체계를 완성하였고, 작년에는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60여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한국방송을 포함한 각 텔레비전 방송국이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서 국민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한껏 높여 주었다. 전국의 공무원들도 한국어를 바로 쓰기 위해서 앞을 닦아내어 국립국어원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한국어를 자기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한국어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 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외국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민중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한국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어를 보급하고 발전시킬 가장 확실한 담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어의 미래에 서운이 감동기 시작하였음을 느낀다.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장 ·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부산·광양 '양방향' 의지 어디 갔나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물동량 처리가 매달 기록을 갱신하는 등 호황을 누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양항이 부산항에 밀리고 인천항에 차이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지난달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누적 물동량도 지난해 수준에 그쳤다. 반면 부산항과 인천항의 지난달 물동량은 각각 12.6%, 15%나 증가했다.

광양항의 물동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환적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머스크라인 선대(船隊)가 부산항으로 옮긴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타이어와 전자제품 등 공산품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광양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인천항에 절

대적으로 밀리고 있고, 환적과 수출입 함으로서의 기능은 부산항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인천항 사이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광양과 부산을 동시에 허브항으로 개발하는 '투포트' 항만정책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투포트' 정책은 치밀하지 못하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러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항만정책이 광양항을 비탈거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의 위기 타개책은 무엇보다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기 개발 및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배후단지 조기 활성화가 물동량 창출에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맞춤 서비스와 마케팅 강화, 항만 시설 개선, 물류시설 연계 네트워크 확충 등도 시급하다.

정부는 광양항의 위기가 한국 물류산업의 위기임을 명심하고 광양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부-대학 '내신 갈등' 서둘러 해결하라

2008 대학입시의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주요 대학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내신 1, 2등급을 동점 처리하기로 한 서울대는 정부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을 고수기로 했다. 교육부도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대학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고 3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시험에 주력했던 학생들이나 내신 비중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기대를 걸었던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당황해 하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혼란되는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요인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지난 4월 내신 1, 2등급을 동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지역 일부 주요

사립대가 내신 4 등급까지 동점 처리기로 하자 재정지원 삭감 등 제재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방침 초기에 강력 대응했다면 사태가 이처럼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내신 처리방침이 나온 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서야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무원칙과 무소신, 말 바꾸기 등의 구태를 되풀이 한 것이다.

대학들의 전형요강도 문제다. 내신 등급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점 처리하면 공교육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학력 격차와 변별력에 문제가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만을 내세워 1~4 등급을 똑같이 적용해선 어느 누가 학교공부에 열성을 보이겠는가. 갈등은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 9월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대입일정은 촉박하다. 교육부와 대학은 합의점을 찾아 수험생과 학부모 등의 혼신을 풀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심미영



2006년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 선포돼 올해로 2회를 맞았다. 우리나라도 이날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을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노인학대에관한센터에서 동시다발적인 노인학대에관한 캠페인을 실시했고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시·도 노인학대에관한센터에 접수된 사례 통계)나 된다. 학대의 요인으로 가족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본다면, 가족관계에서도 보다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낳은 자녀로부터 받는 학대는 신체의 아픔 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게 된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행위자가 정신문제·알코올문제·성격장애가 있거나 부

노인 학대 없는 사회 만들기

또 "누가 부모를 학대 하죠?"라며 아주 패동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발생한다. 정서적 학대는 부양 스트레스나 돈과 관련한 가족갈등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비하된 언어·심한 욕설·집기를 부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녀가 부모의 돈을 욕심내거나 요구하며 생기는 갈등이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학대를 받고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학대 마저도 이해하고 감추려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 학대를 덮을 수 없다. 학대는 이미 사회적인 폭력이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하고 구성 단위의 가정의 붕괴를 말한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노인들이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설 곳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 또한 갈수록 불안해 한다는 뜻이다. 과거 한 아버지가 늙은 부모를 산에 '고려장' 한 뒤 자신이 버리고 온 지계를 들고 온 아들로부터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아버지 고려장해야 하잖아"요"란 말을 듣고 다시 부모를 데리고 왔다는 옛 이야기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노인학대에관한센터〉

노인 학대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도 세월이 흐른 뒤 노인의 이름으로 학대라는 폭력 앞에 놓일 수 있다.

학대는 또 다른 학대를 낳을 수 있다. 가정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폭력에 물들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노인 학대는 가족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아들·며느리인 경우가 전체의 67.3%(2006년 전국 16개

친구를 만나기로 한 백화점 앞에 갔을 때 버스안에서 본 그 여학생이 백화점 앞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너희를 한

청소년들 실새없는 문자·전화 조금증만 키운다

얼마전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 앞에 여고생 한명이 앉아 있었는데 어디론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문자를 10여분 날리다가 전화를 들더니 시시콜콜한 통화를 10여분 계속했다. 무심코 지켜봤더니 내가 버스에 탄 뒤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내리까지 약 20여분간 한번도 쉬지 않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반복했다.

테 버스안에서 문자 몇 개나 날릴줄 알어? 열개도 더 날라갔다! 나 공짜로 보낼 문자 메시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했다. 약속장소로 가면서 만나기 전까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날리며 통화를 하는 탓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의 기다림, 설렘 등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문화가 결국 청소년들에게 조금증만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성만·광주시 동구 운림동

친구를 만나기로 한 백화점 앞에 갔을 때 버스안에서 본 그 여학생이 백화점 앞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너희를 한

Advertisement for 'Wildlife Conservation' (야생동물보호) featuring a tiger logo and text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ildlife. Title: '야생동물의 전원 교향곡'.

급식비·체험 학습비도 현금영수증 처리됐으면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공립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식비·유유대금·현장체험 학습비 등 학교에 꼭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적어도 4만~6만원 정도 된다.

학습지 회사도 부모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해놓고 월 교육비를 납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학교에서 소용되는 금액도 학기 초에 자동이체 서류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필요 여부를 함께 묻고 발급해 준다면 좋겠다.

또 수학 여행이나 수련회 참가비, 걸스카우트 활동비 같은 것 등 그때그때 내는 금액도 있다.

최동생 둘 정도를 둔 가정이라면 1년에 적어도 수십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용들은 보통 학부모가 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는데 매달 현금으로 내면서도 따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은게 기본 마음이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적용해 주길 바란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無等鼓

프로스포츠가 없었던 지난 70년대 고교야구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도시 학생들은 물론 글러브를 제대로 구경도 못해 비료·시멘트 포대로 글러브를 만들어 놀던 시골 학생들에게도 고교야구처럼 흥미진진한 스포츠는 없었다.

으로 참가해 눈물의 투혼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교야구와 함께 했던 40~50대들에게는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허세환, 차동열, 윤여국, 유두열, 오대석, 성낙수 등 왕년의 고교야구 스타들이 이제는 사령탑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와 멋진 대결을 벌였다. 또 고교 감독은 아니지만 김준환 원광대 감독과 장호조 삼삼라이온즈 스카우트가 경기장을 찾아 까마득한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격려했다.

스타들의 조언

지난 18일까지 광주무등경기장에서 8일간의 열전이 펼쳐졌던 제14회 동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전국의 강호 24개 고교팀이 출전, 명승부를 벌여왔다. 초고교급 애이스들이 강속구를 무기로 마운드를 지켰고 정교함은 물론 장타력까지 겸비한 타자들이 치열한 난타전을 벌여 1점차 승부가 무려 6게임에 이르렀다. 대구상원고(여) 대구상고 김민석 투수는 대회 사상 첫 노히트노런을 수립했고 경남 김해고는 부상을 당해도 교체할 선수 하나없이 총 9명

이들 왕년의 스타들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주문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뛰는 학생다운 학생, 인품을 갖춘 선수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력보다는 성실함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스타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스타들까지 지적하는 스타의식의 폐해, 새겨들만 한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문태체육장khh@

이들 왕년의 스타들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주문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뛰는 학생다운 학생, 인품을 갖춘 선수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력보다는 성실함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스타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스타들까지 지적하는 스타의식의 폐해, 새겨들만 한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문태체육장khh@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